

뉴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사회운동방식에 대한 고찰

2008년 촛불집회를 중심으로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배애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조원)

연일 계속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사회운동방식이 동원되고 조직화된 양상을 띠었다. 즉 휴대전화와 인터넷, 와이브로, 인터넷카페를 빼놓고는 설명될 수 없을 정도로 뉴미디어가 시민들의 참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번 촛불문화제를 통해 드러난 다양한 사회운동에 주목, 운동의 효과와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실시간 인터넷중계 등 이번 촛불집회에서 주목을 끈 보도방식이 시민저널리즘 측면에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했다. 이를 위해 사례분석과 인터뷰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사용했다. 사례분석은 이번 집회와 관련해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 토대로 인터넷카페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인터뷰는 집회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목을 끌었던 오마이TV, 칼라TV, 615TV 종사자들을 만나 진행했다. 이러한 진보매체 종사자들과 1인 미디어 운영자들은 실시간 방송의 이점으로 현장 상황을 아무런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꼽았다. 또한 주류 미디어와 달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담을 수 있다는 것도 이점이었다. 있는 그대로의 현장 모습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려는 진보적 대안매체와 1인 미디어들의 활약은 와이브로의 확산과 더불어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인터넷 실시간 생중계, 와이브로, 대안매체, 1인 미디어, 진보매체

* ifsc334@nypi.re.kr

** pinklove05@naver.com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퍼주기식 쇠고기 협상으로 미국정부와의 재협상을 촉구하는 촛불시위가 연일 확산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첫 촛불집회는 2008년 5월 2일 시작됐다. 당시에는 중고생이 대부분이었지만 이후 가정주부, 노인, 어린이 할 것 없이 일반 시민들로 확산되면서 6월 10일 절정에 달했다. 이번 촛불집회는 21년 전인 지난 1987년 6월 민주항쟁 때와는 분위기가 매우 달랐다. 즉 집회 참가 규모나 성격, 중심 이슈, 집회참가자의 연령이나 직업 등 많은 면에서 차이가 났다. 시민들은 돌이나 화염병 대신 촛불을 들었고 집회도 되도록이면 평화적으로 진행했다. 예전처럼 정치적 구호나 이슈보다 광우병 위험 등 건강과 관련된 생활상의 문제가 주요하게 부각돼 거의 모든 연령대의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또한 시민들은 집회참가 자체를 즐기고 있었고 실제로 삼삼오오 모여 노래를 부르거나 서로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특히 와이브로를 장착한 노트북을 통한 인터넷 실시간 중계의 확산은 이전의 사회운동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현상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 같은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쏟아졌다. 김호기(2008)는 촛불집회의 도화선 역할을 담당했던 청소년들을 2.0세대의 등장¹⁾으로 표현했고, 최장집(2008)은 작금의 촛불집회는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한다. 양현아(2008)는 촛불집회가 개인화되고 탈중심적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1) 김호기(2008)는 지금의 10대들을 ‘2.0세대’로 규정하면서 그들은 누구나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웹 2.0’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공간에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아의식과 사회의식을 스스로 형성해나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2.0세대’의 특징으로 ①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소통을 중시하는 열린 공동체를 지향, ② 모바일과 인터넷을 자신의 표현수단으로 삼은 이른바 ‘디지털 유목민’, ③ 자아실현을 소중히 하는 ‘탈물질주의 가치’의 세대, ④ 부모인 ‘386세대’로부터 사회비판의식을 학습한 ‘격세유전’적 특징을 지닌 세대 등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있고 ‘촛불문화제’ 혹은 ‘축제’로 불리고 있는 만큼 그 의미는 꿈과 재미로 표현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남주(2008)는 촛불집회를 ‘거리의 정치’로 규정하면서 시민들은 거리에서 제도적 정치통로를 통해 제기되기 어려운 다양한 요구를 표현하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거리의 정치가 갖는 해방적 기능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이병천(2008)은 다음 아고라를 위시한 인터넷 공간에서 전혀 새로운 사이버광장의 민주주의 혹은 네트워크 민주주의가 출현하고 있다며 촛불집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참여민주적 욕구를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촛불집회를 둘러싸고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등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치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참여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뉴미디어 관점에서 이번 촛불집회를 바라보는 연구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특히 2000년 이후 인터넷이 사회운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시민들의 촛불집회 참여에 미친 뉴미디어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번 촛불집회 사례는 현재까지의 온라인 사회운동 가운데 가장 많은 기술문화를 반영하고 있고 참여수준도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온라인 사회운동으로 평가되고 있다(조희정·강장묵,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이번 촛불문화제를 통해 드러난 다양한 사회운동을 뉴미디어와 참여커뮤니케이션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또한 실시간 인터넷중계와 불매운동 등 이번 촛불집회에서 주목을 끈 온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사회운동의 의미와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뉴미디어와 참여커뮤니케이션

인터넷은 사회운동조직이나 집단이 그들의 주장이나 요구를 공론화시키는 공공적이고 참여적 매체로 자리 잡고 있다. 인터넷은 자원동원, 정치적 기회구조, 집단적 정체성 측면에서 사회운동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김용철, 2008). 즉 인터넷은 사회운동 주체들에게 운동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고 운동집단과 지지세력 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며 운동집단의 내부 응집력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또한 인터넷은 그동안 주변적 지위에 머물렀던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가 그들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공론화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했다. 포드와 길(Ford & Gil, 2001)이 주장하듯이, 인터넷은 제도권 언론이 담지 못했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대안매체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인터넷은 누구나 사이버공간에서 기자이자 편집자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도 했다(Moore, 1999). 이처럼 인터넷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시민들의 참여와 임파워먼트의 매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정재철(2006)은 인터넷을 매개로 한 온라인 시민사회운동의 특징을 ① 저비용 고효율의 시민사회운동, ②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반영, ③ 주류매체가 소홀히 다루는 쟁점이나 주제 전달, ④ 집합적 행동의 용이함으로 정리하고 있다. 과거 산업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계급이나 계층에 기반을 둔 집단적 조직운동이었으나 정보화시대 온라인 시민사회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인 혹은 개별단위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정보화는 일반 시민들의 정치참여 확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윤성이, 2005; 장우영, 2006). 이전 산업사회에서 일반시민들의 정치참여는 선거나 정당 등에 국한됐던 반면 정보사회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가 일상화되고 있다. 즉 게시판과 블로그 등을 통해 표출되는 네티즌들의 의견은 사회 여론을 형성, 강화시키는 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송경재(2005)는 이러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정치참여를 기존의 전통적인 정치참여와 구분해 ‘네트워크형 정치참여’라 규정하고 있다. 즉 패러디물의 범람, 항의메일, 리플달기, 글나르기, 사이버촛불시위 등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이버네트워크 시대의 새로운 정치참여인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민주화와 정보화라는 새로운 정치적 기회구조는 시민사회와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을 촉진하고 사이버공간을 통해 일어나는 사회운동인 사이버액티비즘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장우영(2006)은 사이버액티비즘이 다양한 정치참여 방식을 제공하고 네티즌들의 집합적 정체성 및 정치적 효능감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

한다.

인터넷은 최근 들어 사회적 이슈를 증폭시키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 서귀포 부실 도시락 사건(2005년 1월), 연예인 X 파일사건(2005년 1월), 개똥녀 사건(2005년 5월) 등에서 나타나듯, 이 사건들의 초기 발화자는 무명의 네티즌이었다(김성태·이영환, 2006). 이들의 글은 인터넷게시판이나 블로그,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엄청난 속도로 전파됐다. 이후 인터넷 언론이 중요하게 이 사건들을 다룸으로써 온라인 공간에서 중요의제로 설정됐다. 김성태·이영환(2006)은 이 과정을 “인터넷을 통한 의제과급”(198쪽)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러한 의제과급에는 이메일, 블로그, 게시판, 포털사이트, 메신저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온라인 공간에서 중요 의제로 등장한 이슈는 전통미디어에 의해 보도되는데 이처럼 온라인 의제가 기존 언론의 의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그들은 “인터넷을 통한 역의제설정”(198쪽)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처럼 온라인 미디어는 단지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수용자들의 관심과 요구를 증폭시키기도 한다(이은택·이창호, 2006).

특히 2000년 이후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인터넷언론은 한국사회 언론지형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한 인터넷언론은 제도권 언론이 보도하지 못한 스토리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주류 언론에 맞서는 대안매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박선희(2001)의 연구에 따르면, 기존 언론이 정치나 경제 등 경성뉴스에 많은 비중을 둔 반면 오마이뉴스는 문화나 일상생활 등 연성뉴스를 주로 보도하면서 시민단체 소식이나 소외집단의 목소리, 주류언론비판 등을 많이 다뤘다.

이러한 인터넷언론 외에 최근 활성화된 1인 미디어의 대표적인 형태인 블로그는 기존의 제도권 매체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수단이자 대안적인 정보원천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로 블로그는 이라크 전쟁과 런던 지하철테러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통해 시민미디어로서의 위력을 보여줬다. 라시카(Lasica, 2001a)는 블로그링 현상을 “새로운 형태의 저널리즘, 공공담론, 상호작용성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토대를 만드는 풀뿌리 운동”으로 정의한다.

그는 “수백만 명의 네티즌들이 기자, 칼럼니스트, 분석가 등의 역할을 블로그를 통해 떠맡아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만듦에 따라 웹블로그의 확산은 강력한 새로운 형태의 아마추어 저널리즘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2001a). 그는 블로그가 새로운 뉴스와 정보소스로 기존 미디어 조직을 당장 대체하기는 어렵지만 전통적인 언론매체의 정보소스에 대한 보충의 역할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봤다(2001b). 이러한 블로그의 확산은 미디어의 개인화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개인미디어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3. 뉴미디어를 활용한 사회운동 사례

1) 국내 사례

2000년 이후 인터넷이 중요한 정치참여의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한국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인터넷의 발달은 사회운동의 영역 자체를 확장시켰고 운동방식이나 조직형태도 급격히 변화시켰다(홍일표, 2005). 기존의 매스미디어가 상업적 오락 매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저널리즘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는 반면 인터넷은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고 자유롭게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정치참여를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윤영철, 2000).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온라인 서명운동이나 캠페인, 사이버시위, 배너달기 등 인터넷 공간에서의 독자적 운동방식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 2000년 청소년들의 ‘No Cut’ 운동,²⁾ 2002년 미 장갑차에 희생당한 여중생 추모 집회, 2002년 노사모³⁾의

2) 학교붕괴가 절정에 이르던 2000년 여름, 학생들은 교육당국의 두발규제에 맞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두발자유화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두발제한 반대서명운동을 주도했던 조직은 ‘채널 10(www.ch10.com)’, ‘아이두(www.idoo.net)’, ‘사이버유스(www.cyberyouth.org)’와 같은 청소년 웹진이었다(김영지, 2000).

활약, 2004년 노무현대통령탄핵반대 촛불집회 등 인터넷을 통한 시민들의 정치참여는 새로운 전자민주주의의 실현가능성을 보여줬다. 총선시민연대의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후보자관련정보의 공개, 온라인 서명운동, 후원자 모집, 온라인 정치토론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민주주의 실험을 시도했다(윤영철, 2000). 특히 인터넷게시판은 네티즌들의 자발적이고 활발한 참여 속에 기존의 정치권력이나 제도권 언론의 담론에 맞서는 새로운 공론장으로서 기능했다. 가령, 송경재(2005)가 2004년 노무현대통령탄핵정국 동안 디시인사이드 정치토론 게시판을 분석한 결과, 이 게시판은 탄핵반대를 위한 의제를 설정하고 만드는 등 공론장 기능을 수행했다. 실제로, 게시판을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수백여 건의 글이 올라왔고 이 중 상당수 토론글은 대통령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또한 닉스사의 도메인 선정 조작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안티닉스운동은 운동 전반에 걸쳐 사이트 운영자의 다양한 운동 전략이 사이트방문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 성공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정재철, 2006).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제 인터넷을 통한 시민운동은 매우 일상화되고 있다. 조대엽(2008)은 2000년 이후 한국시민사회를 재구조화한 요소는 무엇보다도 온라인 공론장과 이를 매개로 작동하는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였다고 분석한다. 즉 인터넷을 비롯한 전자정보공간을 매개로 형성되는 ‘전자적 대중’은 통신기술과 뉴미디어로 네트워크화돼 온라인 공론장을 주도하는 공중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자적 공중은 시민사회에서 가장 역동적인 시민으로 등장하고 있다. 정재철(2006)은 개인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사회운동의 주체가 되는 개인차원의 온라인 시민사회운동의 전개가 가장 큰 변화라고 주장한다. 즉 개별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온라인을 통해 제기하면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직되는 온라인 시민운동의 형태

3)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의 등장은 한국 인터넷문화의 독특한 현상 가운데 하나인 카페문화가 정치적 위력을 발휘한 사례로 인터넷상에서 정치적 소통과 동원, 참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잘 보여준 사건이었다(홍일표, 2005).

가 한국사회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이버공간의 운동 전략은 네티즌들의 자발적 참여와 이미 구축돼 있는 사회적 관계를 뛰어넘는 탈경계 연대로 특징되며 오프라인과의 네트워킹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장우영, 2006).

2) 국외 사례

인터넷을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표적인 외국의 사례는 멕시코의 자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이다(Kellner, 1999). 1994년 1월 북미자유협정이 체결되던 날 원주민과 농민으로 구성된 자파티스타 해방군은 멕시코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북미자유협정에 반대하는 투쟁을 벌였다.⁴⁾ 당시 이들 해방군은 자신들의 투쟁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컴퓨터 네트워크인 인터넷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카스텔(Castells, 1997)은 자파티스타의 성공은 첫 정보계달라 운동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즉 그들은 전 세계로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세계적인 연대 네트워크를 조직하기 위해 비디오, 텔레커뮤니케이션,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을 잘 활용했다는 것이다.

독립미디어센터(Independent Media Center, IMC) 또한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 진보그룹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 조직은 1999년 미국 시애틀에서 일어난 세계무역기구(WTO) 반대시위를 계기로 시위참여자들과 활동가들이 독립적이고 대안적인 미디어 조직의 건설을 공감, 설립됐다. IMC는 세계 도처 누구든지 텍스트, 이미지, 그리고 오디오 비디오 클립을 즉각적으로 웹에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세계 곳곳의 사람들은 그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여론화하고 국제적 연대를 형성할 수 있다. 대체로,

4) 농민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값싼 미국 농산물이 들어오면 그들의 삶의 터전이 자 주 수입원인 옥수수 경작이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1934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토지개혁으로부터 대부분 배제돼 있어 멕시코 정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됐었다.

이 사이트의 대부분은 신자유주의와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항하는 활동가들의 투쟁을 알리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이처럼, IMC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게 그들의 목소리와 주장을 전달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보적 대안매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외에도, 수백 명의 미디어 활동가들은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이스라엘, 멕시코 등지에 독립 미디어센터를 건설했다.

Al-Awda(www.al-awda.org)는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를 되찾을 권리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선전하기 위해 2000년 4월 온라인 활동을 시작했다(이은택·이창호, 2006 참조). 웹사이트에 오른 대부분의 내용은 영어로 서비스되고 있다. 팔레스타인 권리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지원하는 이 단체는 자원봉사자의 활동과 기부금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한 활동 중의 하나는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와 가자지구와 웨스트 뱅크에서 팔레스타인 국가의 인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온라인을 통해 받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이 해마다 이스라엘에 지원하는 30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중단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팔레스타인 희생자를 돕기 위해 이 조직은 2002년 비상기금을 마련했고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 사람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온라인 기부는 전 세계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계획됐다. 현재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미국 20여 개 주와 영국을 비롯한 10여 개 국가에서 조직 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팔레스타인 인권과 관련된 토론회나 기부금 행사, 시위일정 등은 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공지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은 억압받은 사람들에게 저항과 투쟁의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활동가들 간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모색하는 초국적 매체로 등장하고 있다. 메일링 리스트를 통한 상호정보교환, 온라인 청원과 기부 등 다양한 온라인 사회운동은 지배적 질서와 제도에 맞선 집단적 저항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인터넷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4. 연구방법

본 연구는 촛불문화제에 나타난 다양한 온라인 운동의 행태를 파악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례분석과 인터뷰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사용했다.

우선, 인터넷카페 사례분석의 경우 이번 촛불문화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대통령탄핵카페와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한 인터넷카페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인터넷카페 게시판을 중심으로 주로 어떤 내용의 글들이 게시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렸는지 알아봤다. 이와 더불어 실시간 인터넷중계 채팅창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채팅창의 의미와 효과를 파악했다. 이러한 직접적인 사례 분석 외에 연구자들은 촛불문화제와 관련해 그동안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도 연구에 반영했다.

인터뷰는 집회 현장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목을 끌었던 오마이TV(2명), 칼라TV(2명), 615TV(1명) 등 모두 5명의 종사자들을 만나 진행됐다. 구체적인 인터뷰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촛불집회 생중계를 시작한 시기와 계기
- 촛불집회 생중계에 필요한 기기나 인원
- 촛불집회 생중계가 기존 언론에 미친 영향
- 촛불집회 생중계 때 중점을 두는 부분
- 채팅창의 역할과 기능 등

인터뷰는 집회가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인 7월 중순과 하순 시청 앞과 홍대 근처서 2시간 남짓 진행됐다.

5. 촛불집회에 나타난 다양한 사회운동방식

1) 뉴미디어를 활용한 사례

(1) 와이브로를 이용한 실시간 인터넷중계

이번 촛불문화제에서 가장 큰 위력을 보인 것은 와이브로⁵⁾를 활용한 실시간 인터넷중계다. 와이브로가 장착된 노트북과 캠코더만 있으면 실시간 중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1인 미디어의 활약이 이번 집회에서 무엇보다도 컸다. 미디어오늘은 1인 미디어의 활약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⁶⁾

디지털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노트북, 웹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로 무장한 1인 미디어들은 마감시간에 제한을 받는 데다 정형화된 기사문체에 빠진 이들 올드미디어들이 따라가지 못할 속도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웹캠이 장착된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집회장면을 생중계하는 전문 BJ(Broadcasting Jockey)와 같은 ‘1인 미디어’가 온오프라인을 통틀어 스타로 떠오르고, 보도와 동시에 쌍방향 의견교환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공론장을 만들고 있다.

실시간 인터넷중계는 칼라TV,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진보매체들이 먼저 시작을 했고 이후 노컷뉴스, 프레시안 등으로 확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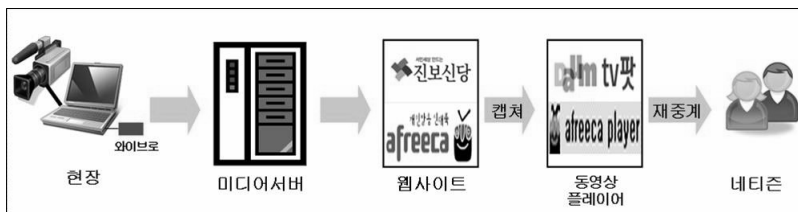
오마이뉴스⁷⁾의 경우 2006년도 와이브로가 첫 선을 보이면서 생중계를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와이브로를 활용해 생중계를 시작한 것은 2007년 대선 때부터다. 이러한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촛불집회 때는 첫 집회가

5) 2006년 6월 KT와 SK텔레콤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와이브로 서비스를 개시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2008)에 따르면, 2008년 1월 현재 와이브로 가입자 수는 10만 명에 이른다. 1년 전 2천여 명에 비하면 1년 사이에 무려 50배나 증가한 것으로 통신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향후 와이브로 가입자 수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6) 미디어오늘(2008.06.11), “촛불, 언론사 다시 쓴다” 참조.

7) 오마이뉴스는 특히 오마이뉴스 2.0 개편과 함께 2007년 9월부터 생중계를 봄과 동시에 댓글을 달 수 있는 실시간 채팅창 서비스를 개시해 호응을 얻었다.

시작된 5월 2일부터 자체 서버를 활용해 생중계를 시작했다.⁸⁾ 진보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는 칼라TV의 경우 <그림 1>처럼 아프리카TV와 다음tv팟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었다. 즉 현장을 담은 모습은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미디어서버를 제공하고 있는 아프리카 TV⁹⁾를 통해 중계되면서 일반 네티즌들에 의해 캡처돼 다음의 tv팟이나 아프리카 플레이어를 통해 네티즌들에게 재중계되고 있었다.



<그림 1> 칼라TV 생중계 방식

칼라TV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자원봉사자는 생중계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라며 예전과 비교해 기술적으로 달라진 것은 와이브로의 등장과 서버접속성이라고 말했다. 즉 예전에는 무선인터넷을 사용해 실시간 중계를 했지만 움직이면 끊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와이브로의 등장으로 이같은 문제

8) 5월 31일 경찰이 물대포를 쏘며 진압할 때는 150만 명가량이 접속했다고 한다.

9) 아프리카(www.africa.com)는 누구나 자신만의 방송을 가질 수 있는 동영상 UCC 사이트로 실시간 인터랙티브 개인방송미디어이다. 이번 촛불문화제를 계기로 생방송 메카로 떠올랐다. 회사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08년 5월 25일부터 촛불집회가 절정에 달했던 6월 10일까지 생중계된 촛불집회 방송은 총 17,222건에 달했고 이를 시청한 네티즌 수는 775만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6월 10일 하루에만 1,357건의 촛불집회 생중계방송이 열렸고 대략 70만 명이 시청했다(김순기, 2008 참조). 하지만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나우콤 대표가 검찰에 의해 구속되면서 촛불시위를 탄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는 해결됐다는 것이다. 또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접속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미디어 서버가 필요한데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동안 개인이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등장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돈을 안들이고 서버를 확장해 중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칼라TV의 경우 촛불집회를 단순히 중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오픈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진중권 교수가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진행방식을 택했다. 즉 단순하게 집회를 중계하는 것은 재미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콘텐츠를 가지기 위해 대중에게 잘 알려진 진중권 교수를 진행자로 내세웠던 것이다. 615TV¹⁰⁾의 한 종사자는 와이브로가 촛불집회에 미친 영향력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역에서도 생중계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는데 지역에서는 와이브로 서비스가 안 되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안정적인 공간, 한 공간에서 진행을 한다면 인터넷 선을 옥외로 뽑아서 진행을 하면 되지만 아무래도 유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대중을 상대로 생생한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술이 보장이 되어야겠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와이브로 때문에 가능하게 됐죠. 와이브로를 통해서 응용해서 하죠. 와이브로가 기본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이 크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위성을 쏘다거나 이런 방식이 있는 거죠. 지금 공중과 같은 경우는 위성을 쏘는 것 같고, 일인 미디어나 중소 미디어 같은 경우는 와이브로로 하는 거죠.

한 인기블로거¹¹⁾도 와이브로가 촛불시위 확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집회가 계속 열리지만 뉴스에서는 단신으로밖에 안 나온다. 현장에서 무슨 일이

10) 615TV는 2008년 6월 15일 개국했고 개국 이전에는 칼라TV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카를 통해 촛불집회 생중계를 실시했다.

11) 미디어오늘(2008.06.11), “디지털 게릴라들이 바라본 쇠고기 촛불정국” 참조.

벌어지는지,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싶은데, 어느 방송에도 나오지 않는다. 이번에 와이브로가 인터넷방송매체와 만나면서 폭발적 인기를 누린 것 같다. 만약 와이브로가 없었다면, 촛불시위가 이만큼 확산됐을까.

진보매체 종사자들과 1인 미디어 운영자들은 실시간 방송의 이점으로 현장 상황을 아무런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꼽는다. 또한 주류 미디어와 달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반영해 내보낼 수 있다는 것도 이점이다.

주류 미디어는 간단한 인터뷰내용도 입맛에 맞춰 자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생중계다보니 편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감 없는 부분이 있죠. 또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저희는 이명박 욕하는 것도 내보내요(칼라TV종사자).

일단 기존매체가 보여주지 못한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국민 중심의 편파방송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생생한 모습을 전달해주고 기존 매체에서 소외되었던 것을 중심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615TV종사자).

현장에 나가면 되도록 화면이 안 끊기도록 많은 노력을 합니다. 또한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결국 판단은 시청자들이 합니다(오마이TV 종사자).

지상파방송이나 일반신문들은 편집과 편성을 통해 제한적이고 선택된 내용만 나간다. 매체의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 다소 왜곡될 수도 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만 중계하고 그대로 보여준다. 실제현장은 미디어를 통해 보는 것과 전혀 판관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나도 직접 가서 보시라고 말한다(아프리카 BJ).

아프리카에서 BJ(Broadcasting Jockey)로 활동하고 있는 한 대학생은 촛불집회 생중계를 시작하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위 미디어오늘 참조).

원래 아프리카에서 시사방송을 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중계를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집회에 참석해보니 기존 언론들이 왜곡하고 감추고 있는 게 보였다. 현장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이들이 기존 언론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처럼 주류 미디어의 보도에 대한 불신과 현장상황을 생생하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려는 열망이 결합돼 인터넷생중계라는 새로운 전달방식이 등장했다. 칼라TV에서 음향을 담당하고 있는 한 자원봉사자는 현장에 나갈 때 무엇에 가장 중점을 두는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집에서 실시간 방송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집회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현장모습을 자세히 스케치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시위대와 경찰과의 충돌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저희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다보니 뛰는 일이 많아요. 주로 시위대 맨 앞부분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전경들과의 대치상황이거든요.

이번 실시간 인터넷중계에서 흥미로운 것은 실시간 인터넷생중계 창 옆에 채팅창이 함께 제공돼 네티즌들의 참여 폭을 넓혔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이 615TV와 라디오21 채팅창을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30개의 댓글을 올렸다(<표 1> 참조). 댓글 내용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¹²⁾과 현장소식을 공유하는 글¹³⁾들이 많았다. 또한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지방 촛불집회

12) 광우병 위험뿐 아니라 의료보험민영화나 대운하 반대 얘기가 많았다.

13) 집회참석자들이 어디로 행진하고 있으며 어디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지 등 집회 현장 분위기를 공유하려는 내용이 많았다.

<표 1> 615TV와 라디오21 채팅창 참여 정도

	총인원	실시간 댓글 수	1인당 실시간 댓글 수 (실시간 댓글 수/총인원)
615TV	272명 (남자 225명, 여자 47명)	8,176개	30.06개
라디오21	47명	1,483개	31.55개

* 채팅시간: 2008년 6월 14일 저녁 9시~15일 자정까지(3시간)

소식을 전하는 글들도 간간이 눈에 띄었다.

채팅창은 또한 생중계 진행자와 네티즌들이 상호 의사소통하는 채널이기도 했다. 615TV에 종사하는 한 직원은 채팅창이 실제 생중계에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을 하다 보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는 채팅창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현지 상황이 어떠한지 물어봅니다. 네티즌들은 여러 생중계 방송을 띄워놓고 보면서 우리에게 그들이 파악한 집회상황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해 중계를 해주는 과정이 있는 거죠.

오마이TV의 한 기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늘어놓았다.

간혹 채팅창을 통해 “어디어디서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취재하세요”라는 댓글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여러 생중계 화면을 켜놓고 집회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네티즌들이 저희들에게 오히려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그는 기사 댓글과 생중계 댓글은 많은 차이가 난다며 생중계 댓글은 감각적이고 즉흥적인 경우가 많아 네티즌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느낌이

들어 좋다고 말했다.

이처럼 진보매체를 중심으로 한 1인 미디어는 실시간 인터넷중계라는 새로운 운동방식을 선보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1인 미디어의 활약은 인터넷 언론뿐만 아니라 주류 미디어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집회현장을 생중계하다 보니 주류 언론이 미처 포착하지 못한 장면을 담는 경우가 가끔 있다. 가령, 2008년 6월 6일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집회 때 칼라TV 스태프가 북괴공작원 출신이 던진 돌에 맞는 장면이 칼라TV에 포착돼 MBC가 그 화면을 구매해간 경우가 있다. 615TV경우도 MBC 뉴스후에서 615TV를 취재해갔고 그동안 찍어 놓은 영상들을 가져가 사용했다고 한다. 615TV의 한 종사자는 1인 미디어를 비롯한 대안언론이 기존 언론에 미친 영향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올해 생방송으로 웹 2.0시대의 획기적인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과 공감하고 대중에게 실제 궁금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쌍방향적 소통이 기존 언론 판도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 공중파에서 행사 시작할 때 딱 찍고 가버리면 끝났잖아요 나머지는 기사로 몇 명 모였고 사람들은 이런 구호를 외쳤다 이것이 교통의 혼잡을 가져왔다 정도의 보도가 중심이었는데 지금의 보도 형태는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기존 언론인 한겨레,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경향신문 할 것 없이 모든 매체들이 이 생방송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밀리면 도태되는 느낌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날마다 경쟁이 있어요. 장비의 혁신이 서로서로 있거든요.

오마이TV의 한 기자도 다음과 같이 주류 언론이 자사 화면을 많이 캡처해간다고 말했다.

저희가 촬영한 장면을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 주류 언론서 가끔 활용합니다. 가령, 한 번은 경찰이 시위대에 포위된 적이 있는데 이 그림을 캡처해 지면에 보도하더라구요. 또한 방송의 경우 저희 생중계 화면을 모니터링하면서 법적 증거

자료로도 활용하고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도 활용합니다.

경향신문은 지난 5월 29일부터 촛불집회 동영상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기 시작했고 한겨레 역시 아프리카와 제휴해 5월 31일부터 촛불문화제 현장을 생중계하기 시작했다.¹⁴⁾ 프레시안도 6월 아프리카를 통해 광우병대책국민회의가 주최하는 토론회와 촛불집회를 생중계했다. 6월 1일 새벽 촛불시위도중 전경의 군홧발에 한 서울대 음대생이 머리를 밟히는 장면은 쿠키뉴스에 의해 처음 보도됐지만 동영상은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카페와 개인 블로그를 통해 급속히 확산됐다. 이 때문에 기존 신문과 방송 뉴스에서도 이 사건이 중요하게 다뤄졌다. 심지어 이 동영상을 보고 집회참여를 결심한 사람이 생길 정도였다(손영일·정호재, 2008).

이번 촛불집회에서 휴대전화는 실시간 인터넷중계방송 못지않게 현장 소식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가령, 진보신당은 촛불집회 상황을 당 홈페이지를 통해 문자로 중계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당 상황실로 휴대전화나 문자를 이용해 현장 소식을 전하면 관리자가 문자프로그램에 접속해 현장 상황을 전하는 것이다.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해당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집회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명박탄핵투쟁연대의 경우 현장상황게시판에서는 회원들이 실시간 문자서비스(SMS)를 이용하여 현장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이 카페는 Daum의 모바일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회원들 간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게끔 운영되고 있다. 즉 이용자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다음에 접속하여 해당 카페에 이동하면 게시글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올릴 수도 있고 게시글에 대한 답글 및 댓글달기도 가능하다.

이처럼 와이브로와 휴대전화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실시간 인터넷중계 방식은 집회현장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을 집회현장으로 동원해내는 역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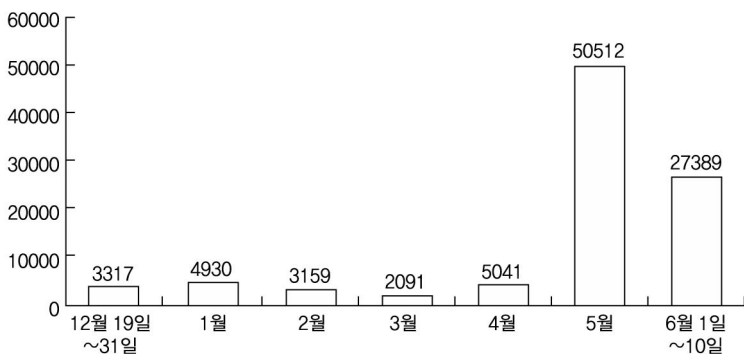
14) 미디어오늘(2008.06.11), “촛불, 언론사 다시 쏜다” 참조

했다. 또한 집회참가자들이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공유하는 환경을 만듦으로써 운동참가자들의 집합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2) 인터넷카페를 통한 정보공유

이번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촛불문화제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친 요소 중 하나는 인터넷카페다. 다음의 아고라광장이나 인터넷카페 등은 광우병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주요 공론장이 됐다. 이창호(2008)의 조사결과,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해 광우병 등 여러 정보를 얻고 있었다. 인터뷰 대상자들이 주로 언급한 인터넷카페는 다음의 엽기 혹은 진실,¹⁵⁾ 정책반대시민연대, 대통령탄핵범국민운동본부 등이었고 인터넷 사이트는 포털 뉴스, 미친소닷넷,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이었다. 이처럼 다음을 비롯한 포털사이트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이명박탄핵투쟁연대카페(<http://cafe.daum.net/antimb>)는 여러 인터넷 카페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온라인 모임이다. <그림 2>는 이



<그림 2> 이명박탄핵투쟁연대 자유게시판 게시글 월별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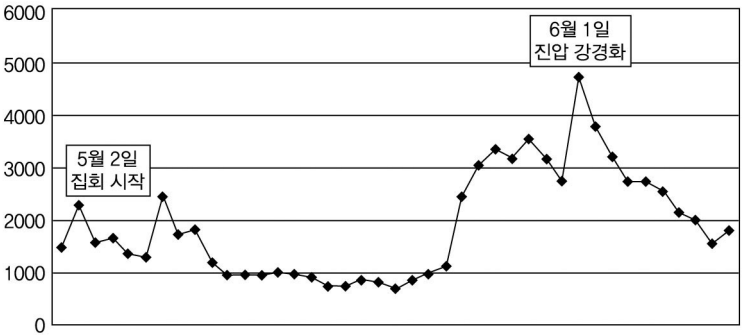
15) 이 카페는 원래 연예인들의 과거 사진들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인터넷카페다.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가 이슈가 되자 ‘광우병소 수입반대’ 게시판을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표 2> 이명박탄핵투쟁연대 자유게시판 게시글 날짜별 변화추이

날짜	게시글 수	날짜	게시글 수
2008-05-01	1473	2008-05-22	869
2008-05-02	2259	2008-05-23	950
2008-05-03	1550	2008-05-24	1066
2008-05-04	1628	2008-05-25	2438
2008-05-05	1330	2008-05-26	3049
2008-05-06	1277	2008-05-27	3350
2008-05-07	2422	2008-05-28	3179
2008-05-08	1688	2008-05-29	3574
2008-05-09	1787	2008-05-30	3156
2008-05-10	1160	2008-05-31	2767
2008-05-11	963	2008-06-01	4781
2008-05-12	960	2008-06-02	3825
2008-05-13	934	2008-06-03	3236
2008-05-14	975	2008-06-04	2767
2008-05-15	962	2008-06-05	2757
2008-05-16	929	2008-06-06	2573
2008-05-17	724	2008-06-07	2108
2008-05-18	736	2008-06-08	1998
2008-05-19	839	2008-06-09	1540
2008-05-20	813	2008-06-10	1804
2008-05-21	705	총게시글	77,901

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을 월별로 제시하고 있다. 이 그림을 보면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집회가 본격화된 5월과 6월 게시글이 집중적으로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는 구체적으로 5월과 6월 게시글이 날짜별로 얼마나 올라왔는지 보여주고 있다. 게시글은 5월 중순부터 약간씩 줄다가 5월 24일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월 24일 이후는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가시화된 시기로 특히 5월 31일엔 처음으로 살수차가 등장해 많은 시민들이 부상을 입었다. 따라서, 경찰과 집회참여자 간의 대립이 구체화된 시기에 게시글이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엽기 혹은 진실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카페 중 하나인 쪽빵클럽(<http://cafe.daum.net/ok211>)¹⁶⁾도 청소년들의 문화제 참여에



<그림 3> 이명박탄핵투쟁연대 자유게시판 게시물 날짜별 변화추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카페 게시글을 조사한 결과, 광우병 관련 글은 2008년 3월 4일 처음으로 올라왔고 이후부터 광우병 위험이 있는 음식 목록이나 광우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사례, 광우병 전염경로 등 광우병의 위험을 알리는 글들이 꾸준히 게재됐다. 또한 집회참가 경험을 함께 나누고 집회참가를 독촉하는 내용과 집회일정과 장소를 공지하는 글도 자주 눈에 띄었다.

이처럼 인터넷카페는 광우병에 관한 여러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촛불집회가 열리는 시간 및 장소를 확인하는 구심점 역할을 했다. 또한 집회참가자의 경험을 서로 나누는 장이 되기도 했고 집회현장 분위기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도 했다.

16) 이 카페는 2008년 1월 29일 개설됐으며 2008년 8월 1일 현재 44,6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주로 연예인 관련 사진이나 소식을 공유하는 카페인데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5월 4일 ‘사회적 이슈들’이란 게시판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광우병에 관련된 여러 정보와 촛불집회 상황 등을 공유했다.

2)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행위양식

(1) 불매운동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은 현재 온라인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운동’의 한 예이다. 특히 1차 보이콧과 2차 보이콧 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인데 1차 보이콧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구독 거부 운동이며, 2차 보이콧은 해당신문사에 광고를 게재하는 기업 및 업체를 대상으로 한 불매 운동이다. 이 운동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촛불집회에 대한 보도가 편파적이라는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8년 5월 31일 개설된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http://cafe.daum.net/stopcjd>)는 조중동 불매 국민캠페인과 경향신문과 한겨레 살리기운동을 전개했다.

불매운동의 초기에는 다음의 아고라를 중심으로 해당 일자에 조선, 중앙, 동아일보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의 목록을 정리하여 ‘오늘의 숙제’ 등의 제목으로 글이 올라오면 수많은 다른 네티즌들이 각자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에 홍보하는 방식으로 정보가 전달되었다. 정보를 전달받은 네티즌은 온, 오프라인상으로 보이콧 운동을 행동에 옮겼는데,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남기고, 고객센터로 항의전화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에 광고 게재 철회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운동 방식은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 식품 관련 기업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였고 소비자의 항의가 기업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한 몇몇 기업은 자사의 홈페이지에 공식 안내문을 내고 광고 철회를 약속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결국 검찰은 불매운동에 참여한 네티즌들을 소환조사⁷⁾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마저 관련 게시물 삭제결정을 내리자 네티즌들은 국내 포털이 아닌 구글 등 해외포털로 불매운동의 거점을 옮기기도 했다.

17)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네티즌들은 검찰청 홈페이지에 불매운동에 참여한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며 ‘나도 잡아가라’는 등의 글을 올림으로써 검찰 측 수사에 항의하기도 했다.

(2) 항의댓글 달기

항의댓글 달기 운동¹⁸⁾은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 참여자들이 행하는 온라인 운동 중 하나다. 운동 방식은 일정한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버 다운을 유도하거나,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촛불집회가 절정에 달했던 2008년 6월 10일에는 촛불집회 현장에서 진행자가 저녁 8시 30분에 인터넷 집회 참여자들에게 청와대 홈페이지에 일제히 접속해 국민의 뜻을 보여주자고 제안했고, 1분 뒤 홈페이지가 실제로 다운되기도 했다.

항의댓글 달기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이번 사건을 편파적으로 보도한 주류 미디어를 비롯하여, 촛불집회 참여자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경찰청과 검찰청 등 정부기관에까지 이어졌다. 또한 집회 참가 도중 시민들이 연행된 경찰서, 보수 신문에 광고를 게재한 기업 등의 홈페이지에서 실제로 항의댓글 운동이 진행되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PD수첩에 대한 ‘시청자 사과’ 결정에 반발한 네티즌들은 PD수첩 홈페이지에 ‘사과하지 마세요.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의 글을 집단적으로 올리기도 하였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홈페이지도 네티즌들이 집단적으로 접속하는 바람에 한때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다.

이 운동은 온라인에서의 ‘플래시몹(Flash Mob)’¹⁹⁾이라 할 수 있다. ‘플래시몹’과 ‘항의댓글 달기 운동’의 차이점은 전자는 뉴미디어 매체가 정보 확산 매개가 되어 오프라인상에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고, 후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약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수의

18) 항의댓글 달기 운동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성지순례 운동’으로 회자되고 있다.

19) 플래시 몹은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이 인터넷 등을 통해 특정한 장소에 모여 미리 정해진 집단적 퍼포먼스를 실행한 후 해산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최초의 플래시 몹은 2003년 6월 뉴욕 맨해튼에서 시도되었다(김용철, 2008). 김용철(2008)은 플래시 몹을 특정 이슈를 둘러싼 즉각적이고 수평적인 사회운동의 형태를 취하는 오프라인 중심 네트워크 운동으로 분류한다. 즉 플래시 몹은 자발적으로 형성된 운동의제와 이예동조하는 불특정 네티즌들, 짧은 시간 내 순간적으로 이뤄지는 집단행동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한 동일한 목소리를 동시에 폭발적으로 냈으므로 피플 파워(People Power)의 힘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앞으로도 향의댓글 달기 운동은 온라인에서 더욱 자주 관찰될 것으로 보인다.

6. 논의

위에서 살핀 대로, 이번 촛불집회에서 이동 중에도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휴대용인터넷인 와이브로(Wibro)의 역할은 컸다. 물론, 아직까지 서울 수도권, 6대 광역시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해 지방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운 문제는 있지만 끊어지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와이브로가 아니었으면 실시간 인터넷중계가 불가능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칼라TV나 라디오21, 오마이TV 등 진보적 대안매체에서 시작된 촛불집회 생중계는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 쿠키뉴스를 비롯한 기존 언론뿐 아니라 프레시안 등 인터넷매체에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

1) 본격화된 1인 미디어 시대

이번 촛불문화제에서 드러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동안 서서히 위력을 발휘해 오던 1인 미디어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집회가 최고조에 달한 6월 10일 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많은 시민기자들이 눈에 띄었다(손영일·정호재, 2008). 이렇게 디지털 기기 속에 담겨진 현장 모습은 인터넷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공유되고 아프리카를 통해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 생중계됐다. 이렇게 1인 미디어가 확산된 배경에는 집회 현장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시민들의 욕구가 컸다. 정회경·김사승(2007)의 분석대로, 온라인 시민저널리스트는 사건 현장을 직접 취재하는 경향이 강했고 개인적 경험을 기사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기존의 직업저널리즘과 달리 시민기자들은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

을 개인의 경험과 결부시켜 비교적 상세히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다. 더구나 휴대전화나 캠코더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사용과 접근이 쉬워지면서 이러한 장비만 갖추면 누구라도 현장 분위기를 담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특히 개인들이 스스로 방송국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아프리카와 같은 동영상 UCC 사이트 덕분에 1인 미디어들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현장을 생중계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이번 집회에서 본격화된 인터넷생중계는 제도권 언론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기도 했다. 잠깐 현장을 포착하는 제도권 언론과 달리 진보적 대안매체와 1인 미디어들은 집회참가자들이 해산할 때까지 현장에 남아 모든 현장 상황을 전달했다. 또한 집회참가자와 경찰과의 충돌이 있을 때는 여러 시민기자들이 현장을 취재하다 보니 충돌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 1인 미디어의 확산으로 기존 제도권 언론이 이제 더 이상 현실을 왜곡하거나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힘들게 됐다. 또한 1인 미디어들은 기존 언론이 취재하지 못한 것들을 보도하고 기존 언론과 다른 시각으로 상황을 전달함으로써 대안매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가령, 시위 도중 전경버스 한 대에 불이 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시위대에 의한 방화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었으나 한 인터넷방송은 이것이 경찰의 자작극이라는 것을 밝혀냈다(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2008). 이처럼 온라인생중계는 현장 상황에 대한 왜곡이나 과장보도의 가능성을 줄이고 네티즌들이 상황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 비록 1인 미디어들이 기존 언론을 대체할 만큼 성장하기는 어렵더라도 기존 언론의 불충분한 보도를 보완할 수 있는 매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작용

2004년 발생한 노무현대통령탄핵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분석한 이원태(2006)는 당시 촛불시위는 온라인 정치참여와 오프라인 정치참여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즉 온라인 행동주의의 측면과 오프라인 사회운동의 측면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공간을 통한 여론 확산은 곧 오프라인 행동으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온라인 공간으로의 재집결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작용은 이번 쇠고기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도 드러났다. 시민들은 거리행진을 하면서 집회참가자들의 이동경로와 부상자 상황, 경찰과의 대치상황 등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카페나 방송국에 보냈다. 이렇게 현장에서 보내진 정보는 인터넷카페게시판이나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사이트 등에 전달됐고 집회참가자들은 휴대전화를 이용,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현장 곳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촛불집회참가자들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정보고립을 극복하고 있었다. 또한 직접 현장에 나오지 못한 시민들은 집에서 인터넷생중계를 보면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댓글을 달거나 집회참가자들을 격려하는 글도 게시하는 등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조대엽(2008)의 주장처럼, 토론방이나 인터넷카페를 중심으로 형성된 다양한 자발적 집단들은 온라인 공론장에서의 토론을 통해 문제를 공유한 뒤 이를 오프라인에서의 시민행동으로 연결함으로써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자발적 집단들을 제3의 결사체로서의 시민단체가 갖는 시민직접행동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조직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제4의 결사체’라 부르고 있다.

7. 결론

이번 촛불집회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와이브로, 인터넷카페를 빼놓고는 설명될 수 없을 정도로 뉴미디어가 시민들의 정치참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같은 UCC 사이트는 1인 미디어뿐 아니라 진보적 대안매체가 촛불집회의 전 과정을 생중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주 인기를 끌었다. 즉 그동안 자본의 영세성 때문에 고전했던

대안매체들이 아프리카리는 UCC 사이트를 활용하면서 대중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시켰던 것이다. 비록 아프리카가 상업적 사이트긴 하지만 이번 촛불집회 때는 실시간 인터넷중계의 집합소 역할을 하면서 네티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생중계방송과 함께 서비스됐던 채팅창도 실시간 댓글의 기능을 하면서 네티즌들끼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또한 현장에서 생중계방송을 하던 1인 미디어들에게 집회상황을 알려주는 등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했다. 즉 이용자들의 참여와 자발성을 끌어낼 수 있는 환경과 기술적 여건이 마련되면서 정보생산자, 정보제공자, 정보소비자의 역할구분이 점차 없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물론, 기술발전 그 자체만으로 사회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네티즌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 참여가 있었기에 사회운동은 예전보다 한층 더 다양해지고 개성이 넘쳐났다. 가령, 앞서 살핀 대로 조중동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네티즌들은 정부의 탄압과 규제에 맞서 발 빠르게 국내 포털사이트가 아닌 국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외국 포털사이트를 활용해 불매운동을 이어갔다. 또한 인터넷카페 ‘소울드레서’ 회원들은 6월 21일 저녁 서울 강남 코엑스몰 메가박스 앞에서 미국산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펼치기도 했다(구본권, 2008). 카페 회원들은 행인들 사이에 있다가 진행자들이 ‘민주주의가 멈춥니다’²⁰⁾라는 손 팻말을 들어올리자 잠시 동작을 멈추는 ‘플래시 몹’을 선보였다. 인터넷카페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의 의미로 닉네임 앞에 ⊗를 붙이는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시민들은 스스로 만든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집회현장에 참여하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시민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뉴미디어 발전과 집회확산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시민운동은 기술적 발전과 더불어 날이 새로워지고 있다. 1990년대 초 PC 통신을 활용한 운동은 2000년대 초 웹진과 인터넷언론의 확산을 거쳐 2008년 와이브로를 활용한

20)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방명록 등에서 여러 차례 한글맞춤법에 어긋나게 사용한 것을 풍자해 ‘습’ 대신 ‘읍’을 썼다고 한다.

실시간 인터넷중계에까지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들이 제기한 아이디어가 공유 확산되면서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운동방식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네티즌들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사이버운동은 오프라인 운동과 결합돼 더욱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앞서 살핀 대로, 1인 미디어의 확산은 제도권 언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시간 인터넷 중계로 제도권 언론이 미처 담지 못한 현장 화면을 제공해주기도 하고 기획보도에 필요한 자료 화면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특히 현장성과 사실성을 중시하는 1인 미디어들의 기자정신은 직업적 저널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취재윤리나 규범 못지않다. 아톤(Atton, 2002)이 언급한 대로, 대안매체의 보도 기술은 ‘있는 그대로의 보도(native reporting)’다(p.495). 즉 대안매체에서 일하는 기자들은 그들이 표상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의 동기나 경험, 느낌 등을 본 그대로 전달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즉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협력과 지지 속에 커뮤니티에 의미 있고 관련성 있는 뉴스를 제시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진보적 대안매체 종사자들도 현장을 누비고 다니면서 그들이 목격하고 경험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 했다. 이러한 현장중심의 보도 열망은 제도권 언론에 대한 불신과 편파보도와 맞물리면서 더욱 강렬해졌다. 즉 진보매체와 1인 미디어들은 제도권 언론의 보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하면서 그동안 권력 감시견으로 불렸던 언론에 대한 비판적 감시의 기능을 수행했다(Singer, 2007). 이러한 현상은 블로거를 비롯한 시민기자들의 활약으로 그동안 직업 저널리스트들이 다져왔던 영역이 점차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뉴미디어와 사회운동이 결합되면서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운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우선, 다양한 정보와 의견이 소통돼야 할 온라인 공간이 특정 담론에 의해 지배될 가능성이 있고 왜곡되거나 과장된 정보가 넘쳐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쪽백클럽에는 광우병 위험에 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표출된 글들이 많았는데 대부분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글들이었다. 이러한 근거 없는 글들은 광우병에 관한 위험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 실제로 광우병에 관한

두려움은 심지어 수돗물에까지 번져 집이나 학교에서 샤워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까지 확산되기도 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실시간 인터넷중계는 있는 그대로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욕설이나 비난 등이 담긴 인터뷰 장면이나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장면이 여과 없이 내보내질 위험도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진보매체를 중심으로 한 1인 미디어들의 활약은 뉴미디어의 확산과 더불어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뉴미디어와 사회운동이 본격적으로 결합되면서 이제 제도권 언론의 보도에 맞설 수 있는 세력은 진보적 대안매체를 비롯한 1인 미디어의 손으로 점차 넘어가고 있다. 일정한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 상황을 본 그대로 생생하게 전달하려는 1인 미디어의 열정과 노력이 새로운 시민저널리즘의 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작금의 상황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수개월간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 속에 전개된 촛불집회는 2002년 월드컵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고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의 사회참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촛불집회에서 표출된 국민의 힘과 열정을 어떻게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할 때다.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인터넷을 민의를 수렴하는 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주요 공론장으로 떠오른 다음의 아고라를 비롯한 인터넷카페와 사이트를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네티즌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어떤 견해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생활화된 이상 앞으로의 의사소통은 인터넷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Ⅰ 참고문헌

- 구본권 (2008.06.23). 영리한 시위군중 ‘스마트 몹’ 눈길. 『한겨레신문』.
- 김성태·이영환 (2006).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의제설정모델의 적용: 의제과급과 역의제설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권 3호, 175~204.
- 김순기 (2008.06.12). 아프리카 촛불집회방송 시청자 700만 돌파. 『전자신문』.
- 김영지 (2000). 『청소년웹진 활용의 실태와 의미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용철 (2008). 정보화시대의 사회운동: 온라인 사회운동의 유형과 특징.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5권 1호, 5~42.
- 김호기 (2008.05.14). 쌍방향 소통 ‘2.0세대’. 『한겨레신문』 기고문.
- 박선희 (2001). 인터넷 신문의 뉴스 특성과 대안언론의 가능성: <오마이뉴스> 기사분석. 『한국언론학보』, 제45-2호, 117~155.
-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2008). 『축제에서 저항으로?: 촛불집회의 정치적·사회적 의미 토론회 자료집』.
- 손영일·정호재 (2008.06.25). ‘1인 미디어’ 전사들의 힘 촛불을 햇불로 바꿨다. 『주간동아』.
- 송경재 (2005). 네트워크 시대의 인터넷 정치참여: 탄핵정국 디시인사이드 정치토론게시판을 중심으로. 『담론 201』, 8(3), 123~160.
- 양현아 (2008). 촛불집회, 차이와 공공성의 새로운 공간. 경향신문 주최 ‘촛불집회와 한국민주주의’ 긴급시국대토론회 발표문.
- 윤성이 (2005). 정보화시대 온라인 미디어의 역할: 온라인 정치참여 제도화의 차원에서. 『국제평화』, 제2권 2호, 3~36.
- 윤영철 (2000). 온라인 게시판 토론과 속의 민주주의: 총선연대 사이트의 게시판 분석. 『한국방송학보』, 14-2호, 109~150.
- 이남주 (2008). 촛불집회와 민주주의의 과제: 거리의 정치, ‘일탈’이 아니라 ‘정상’으로. 경향신문 주최 ‘촛불집회와 한국민주주의’ 긴급시국대토론회 발표문.
- 이병천 (2008). 이명박 정부와 촛불연대: 뒤바뀐 위기와 기회, 6.10과 그 이후. 경향신문 주최 ‘촛불집회와 한국민주주의’ 긴급시국대토론회 발표문.
- 이은택·이창호 (2006). 『저널리즘의 이해』.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이원태 (2006). 인터넷 포폴리즘과 한국 민주주의. 『시민사회와 NGO』, 제4권 1호,

81~110.

- 이창호 (2008). 2.0 세대의 등장과 미디어 공론장의 변화.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이명박 정부의 소통, 민주주의의 소통’ 주제 발표문.
- 장우영 (2006). 정치적 기회구조와 사회운동: ‘총선연대’와 ‘노사모’의 사이버액티비즘을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제13권 3호, 49~68.
- 조대엽 (2008). 2008년 촛불집회와 ‘제4의 결사체’. 경향신문 주최 ‘촛불집회와 한국민주주의’ 긴급시국대토론회 발표문.
- 조희정·강장묵 (2008). Web 2.0 시대 온라인 사회운동: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 촛불문화제’에 나타난 참여의 조건 분석을 중심으로 IT 정치연구회 발표 자료.
- 정재철 (2006). 온라인 시민사회운동의 공론화 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안티닉스 운동 게시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33호, 253~285.
- 정희경·김사승 (2007). 온라인 시민저널리즘의 뉴스생산양식 특성에 관한 분석. 『한국언론학회』, 51권 2호, 124~152.
- 최장집 (2008). 촛불집회가 제기하는 한국민주주의의 과제. 경향신문 주최 ‘촛불집회와 한국민주주의’ 긴급시국대토론회 발표문.
- 한국인터넷진흥원 (2008). 『한국 인터넷 백서』.
- 홍일표 (2005). 인터넷과 시민운동. 이종구·조형제·정준영 외 지음, 『정보사회의 이해』(287~309쪽). 서울: 미래 M & B.
- Atton, C. (2002). News Cultures and New Social Movements: radical journalism and the mainstream media. *Journalism Studies*, 3(4), 491~505.
- Castells, M. (1997). *The Power of Identity*. Oxford: Blackwell.
- Ford, T. V., & Gil, G. (2001). Radical Internet Use. In J. Downing (Ed.), *The Promise of Global Networks* (pp. 137~160). Queenstown, MD: The Aspen Institute.
- Kellner, D. (1999). New Technologies: Technocities and the Prospects for Democratization. In J. Downey & J. McGuigan (Eds.), *Technocities* (pp. 186~204). London: Sage.
- Lasica, J. D. (2001a). Blogging as a form of journalism. *Online Journalism Review*. Retrieved from <http://www.ojr.org/ojr/workplace/1017958873.php>
- _____ (2001b). Weblogs: A New Source of News. *Online Journalism Review*.

Retrieved from <http://www.ojr.org/ojr/workplace/1017958782.php>

- Moore, R. K. (1999). Democracy and cyberspace. In B. N. Hague & B. D. Loader (Eds.), *Digital Democracy: Discourse and Decision Making in the Information Age* (pp. 39~62). New York: Routledge.
- Singer, J. B. (2007). Contested Autonomy: Professional and popular claims on journalistic norms. *Journalism Studies*, 8(1), 79~95.

(투고일자: 2008.08.28, 수정일자: 2008.10.08, 게재확정일자: 2008.10.17)

An Analysis of Various Types of Social Movement Through the New Media

Focusing on the 2008 Candle Rally

Chang-Ho Lee

Research Fellow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e-Jin Bae

Assistant Researcher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candle rally against the import of American beef which lasted for a long time was full of various types of social movement. That is, new media including mobile phone, Internet, Internet cafe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obilizing people around the rally. Thu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meaning and effect of these kinds of movement. In particular, it analyzed the possibility of real time broadcasting through the Internet as civic journalism, which received much attention in the rally. For this, this research used case study and interview as main research method. Case study focused on Internet cafes based on the media coverage of the rally.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workers at OhmyTV, Color TV, and 615TV. These workers at progressive media emphasized on the scene coverage as the advantage of real time delivery. Transmitting many citizens' voices was another advantage. It is expected that personal media and progressive media which try to show the scent as it is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future journalism with the expansion of Wibro.

Key words: Internet real time broadcasting, Wibro, alternative media, personal media, progressive media